

특집: 문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일본미(美)

보수의 미학: '포스트전후' 일본 보수주의의 정치미학 | 장인성

투고일자: 2015. 5. 31 | 심사완료일자: 2015. 6. 17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탈냉전기에 일본 보수주의자들은 활발한 언론활동을 벌이면서 보수적 견해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전후체제를 부정하고 포스트전후를 지향하는 일본 보수주의자들의 사상과 미학을 니시베 스무(西部遼)와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포스트냉전기 일본에서의 보수미학은 상식론, 질서론, 국가론에서 포착될 수 있다.

일본 보수주의자들은 상식과 체험에 나타난 역설적 심리에서 낭만적 기분과 투쟁감각을 드러낸다. 그들은 근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평형감각을 보이지만,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의 질서를 중시했을 때 평형감각은 붕괴된다. 이들의 평형감각과 질서관은 전통과 역사에 기초한 국가 표상을 강화하고 전쟁체험을 기억해내 국가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공동성의 미학으로 귀결된다.

전후체제의 종언을 꿈꾸는 보수주의자들의 역설, 균형, 공동성의 미학은 전후체제 형성기에 보수주의를 정초한 후쿠다 쓰네히라(福田恆存)에 건주어보면 상당히 이질적임이 드러난다. 사회과학적 비평을 하는 '포스트전후' 보수주의자들은 문예적 비평을 한 '전후'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개체적 실존보다는 전체적 실존을,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질서를, 개별적 체험보다는 전체적 체험을 중시하는 보수적 사유를 보인다. '포스트전후' 보수주의자들의 '포스트근대' 지향성은 일본 지식사회에서 문예적 교양이 크게 약해진 것과 관련된다.

주제어: 일본 보수주의, 전후체제, 포스트전후 의식, 니시베 스무, 사에키 게이시, 후쿠다 쓰네히라, 상식, 질서, 국가

메이지 일본의 '풍경' 발견: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1888~1890)를 중심으로 | 박삼헌

투고일자: 2015. 7. 6 | 심사완료일자: 2015. 7. 10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이 글에서는 1888년부터 1890년까지 출판된 『일본명소』(전 7권)를 통해서 메이지시대에 '발견'된 일본 풍경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본명소』가 발견한 '일본'은 천황을 매개로 하는 풍경, 메이지시대의 국가 차원의 슬로건인 문명개화와 식산흥업을 구현한 풍경, 새로 영토로 편입된 지역을 '일본' 속에 존재하는 타자로 시각화한 풍경이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훗날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과학적으로 '일본' 풍경을 발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풍경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명소』는 단순한 여행안내서가 아니라,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발견한 '일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심상지리서였다.

주제어: 메이지, 풍경, 내셔널리즘, 여행, 시선

일본적 미의 지층과 가와바타 야스나리 | 조정민

투고일자: 2015. 5. 18 | 심사완료일자: 2015. 6. 7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1968년의 일이다. 당시 가와바타는 스톡홀름의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아름다운 일본의 나: 그 서설〉(美しい日本の私: その序説)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강연을 했는데, 이는 ‘아름다운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승인받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가와바타가 그토록 강조하던 ‘아름다운 일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패전 후의 가와바타는 여러 기회를 통해 ‘일본 미의 전통’이나 ‘옛 산하’, ‘고래(古來)의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천명한 바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패전 후의 상황을 봉합하고 수습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 일본’과 ‘현재의 일본’을 직결시키기만 하면 전쟁에 관한 상처와 아픔을 봉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일본’에는 패전에 관한 어떠한 역사적 경험도 각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고대 일본’을 패전 후의 상황에서 새롭게 전유할 수 있다면, 전쟁 기간은 공백으로 처리한 채 ‘일본’ 혹은 ‘일본 민족’, ‘일본의 전통’이라는 관념을 균열 없이 매끈하게 환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가와바타는 서구 근대문학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고전 문학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고, 여기에 일본적 미의 근원이 잠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가와바타가 전후에 ‘일본적 미’에 관해 집착한 것은 전쟁, 혹은 패전에 대한 능동적인 망각과 재건의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후 일본사회의 보수화라는 토양 위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상징적인 권위와 가와바타의 화법이 더해져,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가상의 현실과 허구적 진실이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와 더불어 가와바타의 미적 세계관이 지금의 일본 사회에서 정치적 수사 내지 통치 전략으로 폭넓게 원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국가라는 자장이나 세계화 국면 안에서 호출되었던 ‘아름다운 일본’은 여전히 감성적 공동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가와바타 야스나리, 아름다운 일본, 일본 회귀, 패전과 문학

일본전통논쟁과 타자, 조몬적인 것 | 조현정

투고일자: 2015. 6. 2 | 심사완료일자: 2015. 6. 15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본 연구는 1950년대 일본전통논쟁에서 유행했던 조몬으로 대표되는 원시적 열망에 대한 연구다. 전사시대 조몬 미학의 강렬한 원시성과 역동성은 섬세하고 나약한 일본 예술의 대안이자, 패전 이후 침체된 일본 문화를 쇄신할 활력으로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다. 이들은 먼 과거의 조몬 전통을 소환함으로써 일본 문화의 정당한 정체성을 수립하고 전후 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학문적 탐구와 신화적 상상의 영역 사이에 놓인 조몬에 대한 이해는 발화자에 따라 각기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위 미술가’ 오카모토 다로와 ‘국가 건축가’ 단게 겐조의 조몬론에 대한 비교 연구는 전통논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구라는 타자, 그리고 일본의 먼 과거라는 또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전후 일본의 예술생산 방식의 두 가지 모델을 조명할 수 있게 한다. 오카모토가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일본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조몬적 원시성의 세계를 추구했다면, 단게는 조몬과 야요이의 중합을 통해 일본적이면서 동시에 모던한 전후 일본 건축의 국가적 양식을 확립하고자 했다.

주제어: 조몬, 야요이, 오카모토 다로, 단게 겐조, 일본전통논쟁

현대 ‘일본화’에 나타난 전통미의 재생과 동서의 융합: 마쓰이 후유크의 작업을 중심으로

| 최재혁

투고일자: 2015. 6. 1 | 심사완료일자: 2015. 6. 8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이 글에서는 보수적인 일본 화단에서 새로운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 마쓰이 후유크의 작업을 통해 근대에 ‘만들어진’ 개념인 ‘일본화’가 현대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마쓰이는 비단에 물감을 많이 머금어 넓게 채색하고 담묵의 선묘로 섬세하게 윤곽을 표현하는 고전적인 견본착색 기법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기법은 자신의 테마인 고통, 광기, 트라우마와 같은 정념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령과 시체가 부패해가는 모습을 담은 전통적인 유령화와 구상도 등의 소재를 참조하면서도 그 속에 동시대적 양상이나 서양미술, 서양미술학과 관련된 개념을 담아내어 현대적으로 변안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서양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메이지 시기에 성립된 ‘일본화’는 서양미술과 절충하는 화혼양재의 방법론을 취했다. 마쓰이가 현재 평단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마쓰이는 일본화의 기법적인 측면에 대한 천착과 더불어, 내용 면에서는 동시대의 상황이나 페미니즘을 비롯한 현대 사상, 서양현대미술의 작가와 작품의 사례까지 적극 수용하는 이른바 ‘화재양혼’(和材洋魂)의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마쓰이 후유크는 이종혼교성과 인위성을 태생적으로 지닌 ‘일본화’라는 장르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또한 ‘새로운 일본화’를 창출해내기 위해 ‘고투’했던 근대기의 기억을 현재적 시점에서 향수하게끔 하는 역할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마쓰이 후유크, 일본화, 전통, 유령화

연구논단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재조명 | 김용철

투고일자: 2015. 6. 10 | 심사완료일자: 2015. 6. 22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에서는 오카쿠라 덴신을 재조명하면서, 그의 저서 『동양의 이상』의 첫 문장 “아시아는 하나다”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다. 선각자, 예언자로 추앙받은 그의 사상은 침략적 아시아주의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동양의 이상』, 『일본의 각성』과 함께 영문원고를 책으로 간행한 『동양의 각성』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전투적 아시아주의 혹은 침략적 아시아주의를 내포한 『동양의 각성』은 원래 덴신이 인도 체류 당시 자신의 비분강개를 반영한 원고다. 이 원고는 인도 여행의 기념품으로도 평가받지만, 덴신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다. 이는 덴신 자신도 출판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양의 이상』은 일본의 정체성과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일본의 각성』은 메이지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측면이 강하다. 동시대의 침략적 아시아주의 혹은 전투적 아시아주의는 『동양의 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일·태평양전쟁기 덴신이 선각자로 추앙받은 것은 그가 생전에 남긴 업적 자체보다는 침략적 아시아주의로 치달은 시대의 요구가 투영된 측면이 더 크다.

주제어: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중일·태평양전쟁기, 아시아주의, 동양의 이상, 동양의 각성

1880년대 후반 메이지 일본의 전쟁 담론 공간:

야마모토 주스케(山本忠輔)의 『일본군비론』(日本軍備論)을 중심으로 | 최정훈

투고일자: 2015. 6. 24 | 심사완료일자: 2015. 7. 1 | 게재확정일자: 2015. 8. 4

이 글에서는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한 야마모토 주스케의 『일본군비론』에서 군비확장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야마모토의 글은 군비확장론에 반대했던 우에키 에모리와 나카에 조민의 담론과의 비교 속에서 분석될 것이다. 야마모토는 두 사람과 정책론적 결론은 달리하지만, 이들과 주된 전제는 공유했다. 이들은 전쟁이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쟁 혹은 상비군의 폐지라는 유토피아주의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단, 야마모토는 영토적 통합성과 인민의 생명력을 부활시켜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우에키와 달랐다. 또, 야마모토는 군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세(勢)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조민과 같았지만, 전쟁 위기가 고조된 것으로 세의 내용을 조민과 달리 해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1880년대 민간의 군비담론이 정부와 구별되는 고유한 담론 공간에서 생겨났으며, 이 공간에서 저자들은 적의 논변과 선택적으로 접속·단절됨으로써 자신의 담론을 구성해나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주제어: 야마모토 주스케, 일본군비론, 우에키 에모리, 나카에 조민, 후쿠자와 유키치